



정기총회 개최

2009년 사업계획 검토



지난 2월 25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양계협회 2009 정기총회가 대의원 230명 중 1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8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산과 200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및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검토되었다.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에서는 토종닭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원구정을 신설하고, 임원 중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협회회원회비를 인하여 회원배가 운동 및 지역조직 활성화를 토대로 국내 양계생산자의 목소리를 집결할 수 있는 협회 창구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본문 82페이지 참조)

이창범 축산정책담당 협회 방문

양계현안 문제 논의

신임 이창범 축산정책담당장이 지난 10일 본회를 방문, 이준동 회장과 양계업계 현안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준동 회장은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육계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 종계의 난계대



질병 퇴치 방안, 백세미 생산의 문제점 등 양계업계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창범 축산정책담당장은 FTA 등 어려움 속에 협회를 중심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협회에서 열심히 하면 정부에서도 적극 도와줄 것을 약속하였다.

중국 Bright Wisdom사 본회 방문

중국내 투자방안 논의



한중합자회사인 부동산컨설팅, 축산업컨설팅, 프랜차이즈컨설팅 등을 다루는 Bright Wisdom사측은 지난 4일 본회 방문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종합컨설팅사의 도약을 계기로 내수 시장진출방안에 대한 유익한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는 최근 중국이 외국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협회차원에서 중국내 진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은 자국내 소비수준이 증가되고 양계산물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국과 같은 양계기술과 시설을 적극 유치, 인프라 구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노계 도계장 대표자 회의 자조금 거출기관 협조요청



산란계임무자조금 추진을 위한 산란노계 도계장 대표자 회의가 이준동 회장을 비롯해 천강균 부회장, (주)유진 우은숙 사장·고시주 소장, 정우식품 이한빈 이사, 싱그린푸드시스템 최병호 전무, (주)에스에스푸드 신현길 실장·권봉만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9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회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산란계임무자조금사업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자조금 의조성 및 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거출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는 산란노계 도계장을 대상으로 자조금제도 및 자조금의 필요성, 거출기관으로서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며 거출기관으로서 협조 및 수납기관대

표 관리위원 위촉을 요청했다. 이에 산란노계 도계장측은 산란계산업 안정화에 기여하는 산란계임무자조금의 도입에 공감하며 자조금 거출기관으로서 거출협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노계가격 하락시 거출 애로점과 같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책 마련 및 노계가격 조사발표시 도계업체 의견을 수렴해 필드가격과의 차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수납기관대표 관리위원으로는 싱그린푸드시스템 김재문 대표를 위촉하기로 했다.

채란분과위원회

산란계 자조금 거출액 노계수당 최고 150원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에서 산란계자조금 거출금액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거출금액 기준은 지난해 농협발표 특란 평균가격인 107원으로 자조금법에 따라 5/1000으로 환산하고 수당 평균 300개의 계란을 생산한다는 것을 감안해 노계 수당 100원 또는 150원이라는 거출금액이 나오면서 대의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계란을 학교급식 보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내 양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급식을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국민 기초 수급대상 초중고생에게 계란급식을 시행토록 하고 급식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종란 병아리 표준계약서 논의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가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종란·병아리 표준계약서 등 현안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종란·병아리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 종란150개 생산을 기준으로 257원의 원가가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면밀하고 정확한 산출을 통해 농가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종계장 질병예방과 관련해 닭빈혈증과 뉴모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백신도입을 서둘러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육계분과위원회

의무자조금 추진 방안 논의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가 지난18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법개정관련 축산단체 공동



의견, 육계의무자조금 추진사항, 친환경인증 개선사항, 25개 품목별 생산·유통개선 워크샵에 대한 각각의 보고가 있었고, 논의사항으로는 의무자조금 추진방안과 대계열사 협상관련 농가대표 선출건이 논의되었다. 육계의무자조금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구성된 관리위원 19명이 지난 2월 25일 서면결의를 통해 선출되면서 향후 자조금사업에 대한 육계농가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4월 15일경 대의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하에 육계 임원 및 지회, 지부장, 분과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육계계열화업체 계약서 개선” 관련 회의개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계열사와 농가대표들이 모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협의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농가대표 선임에 들어갔다. 이 협의회는 빠르며 4월부터 월 2~3회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 승진인사 발령

본회는 3월 1일자로 경영지원부 김재홍 과장을 차장으로 승진 발령하면서 경영지원부 기영훈 사원을 대리, 이남희 사원을 대리, 홍보부 장성영 사원을 대리로 각각 승진인사 발령했다.

김재홍 차장은 육계분과와 종계DB구축사업을 맡

아오면서 전국 종계농가의 조사와 실태분석을 통해 매달 종계 DB정보지 발간을 통해 종계수급조절을 위해 양계산업에 기여해 오고 있다. 기영훈 대리는 월간양계 발간 업무를 거쳐 양계자조금사업 추진을 맡아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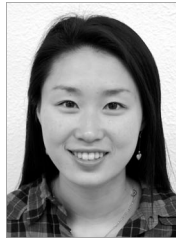
▲ 김재홍 차장



▲ 기영훈 대리



▲ 이남희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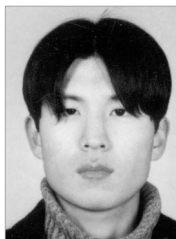


▲ 장성영 대리

고, 현재 자조금사업과 채란분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남희 대리는 전국 양계산물 시세조사와 양계속보 발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성영 대리는 홍보부에서 월간양계 기사 취재 등 편집 및 발간업무와 광고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부서이동

본회 검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박수영씨가 지난 3월 16일부로 홍보부 월간양계 기자이자 박람회 담당자로 배치 받았다. 박수영씨는 안성에 위치한 검정연구소에서 3년 5개월간 산란계, 육계 검정업무를 맡아왔고, 그간 필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현장감 넘치는 기사를 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박수영 씨

정선부 고문 별세

본회 고문으로 활동하시던 정선부 박사가 지난 3월 21일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정선부 고문은 충남대학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축산기술연구소(현 국립축산과학원)에 입사하여 축산연구원, 제주시험장장, 축산기술연구소장, 낙농진흥회 전무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본회 자문위원인 편집위원, 검정위원을 맡아 활동하였고 최근까지 본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양계산업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세웠다. 저서로는 가금생산학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지회 · 지부 소식

대구경북도지회

송인환 신임 지회장 취임



대구경북도지회는 지난 5일 대구 서구 소재 알리안스웨딩홀에서 정기총회 및 도지회장 이·취임식을 단행했다. 송인환 신임 지회장(성진부화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양계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많은 양계농가가 협력할 수

있도록 협회를 통해 집결되길 바라며 금년에 진행될 양계인대회가 상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많은 양계인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날은 경북도 농수산물 이태암 국장, 장원혁 과장, 한국양계농협 오정길 조합장, 대구축산농협 우효열 조합장, 경북대학교 수의대학 김기석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광주전남도지회

정기총회 및 전남녹색축산 친환경 계란·닭고기 생산 다짐대회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정준규)는 지난 11일 나주 소재 스타웨딩홀에서 '전남 녹색축산 친환경 계란, 닭고기 생산다짐대회 및 200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강경구 김포시장을 비롯해 본회 이준동 회장, 천강균 부회장, 오세을 경기도 연합회장 등 양계농가 170여명이 참석했다. 김응실 신임 지부장은 “안전한 양계산물에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질병없는 양계산물 생산에 노력하자.”고 밝혔다.

당진육계지부

이종승 신임 지부장 취임식

당진육계지부는 지난 2월 26일 충남 당진소재 축



산관광농원에서 신임 이종승 지부장의 취임식이 단행됐다. 이날은 본회 부회장이자 전, 당진육계지부장으로 지낸 이홍재 부회장을 비롯해 민중기 당진군수, 최동섭 당진군의회의장, 김기원 당진축협조합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종승 신임 지부장은 육계산업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부장이 될 것이라 밝혔다.

- 지부장 : 이종승
- 부지부장 : 한용현, 이민호
- 감사 : 호종삼, 김관호
- 총무 : 손현동

김포채란지부

김응실 신임 지부장 취임식

김포채란지부는 지난 9일 황제웨딩프라자에서 11대 및 12대 지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응실 신임 지부장은 회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 김응실 지부장

- 지부장 : 김응실
- 부지부장 : 장순배
- 감사 : 고판진, 김선배
- 총무 : 이태중